

한국후지제록스, 새 사무환경 제시 디지털인쇄시장 겨냥한 '컬러1000프레스' 출시

유비쿼터스 사무환경 겨냥한 스마트폰 활용 눈길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9월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한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하는 '땡큐 컬러(Thank You COLOR)'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제품 디지털 인쇄기 '컬러 1000 프레스(Color 1000 Press)'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컬러와 솔루션이라는 가치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되는 사무환경을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연회와 세미나로 구성됐으며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프린팅 솔루션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문서관리 솔루션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직장인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사무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조성된 체험 존(Zone)은 최근 기업 시장의 화두인 '친환경(Eco)', '유비쿼터스', '보안 및 TCO' 등을 포함하는 네 가지 테마로 준비되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 1_ 첫선을 보인 컬러1000프레스
- 2_ 기자회견 모습
- 3_ 한국후지제록스 관계자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4_ 우에노 야스히키 사장
- 5_ 코지 데츠카 부장
- 6_ 황인태 영업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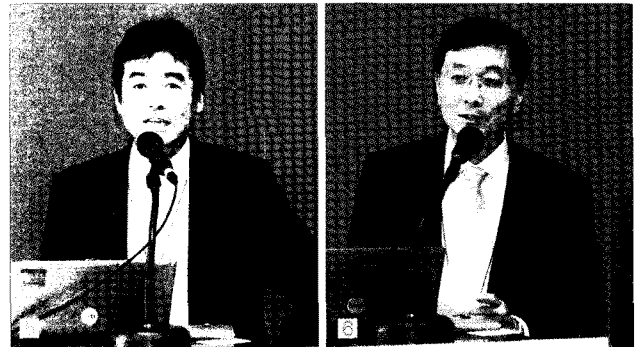
않는 유비쿼터스 사무환경을 주제로 열린 모바일 프린팅 솔루션 시연회에서는 디지털 복합기와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스캔하고 출력하는 것이 가능한 DCA(Document Connection Apeos) 시스템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DCA시스템은 사용자가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고 IP 주소를 등록하면 동일한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된 모든 복합기에서 문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도입을 망설였던 중소기업을 위한 솔루션도 소개되었다. 설치가 비교적 쉽고 유지보수 부담이 적은 문서관리 솔루션인 EDMS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전자문서화 및 문서공유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이 외에도 삼성경제연구소 최병삼 수석연구원이 '그린 IT의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부경대 송경철 교수는 국내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인쇄의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다양한 적용 가능한 고사양 컬러 1000 프레스

이 날 행사에서 한국후지제록스는 디지털 인쇄기 '컬러 1000 프레스'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사내 출력에서부터 상업 인쇄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컬러 1000프레스는 빠른 출력 속도와 고사양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동급 제품 대비 경제적인 가격과 사이즈의 소형화를 실현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후지제록스는 2400×2400dpi의 고해상도로 가장 얇은 55g의 용지에서부터 350g의 두꺼운 용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량의 용지를 분당 100매의 빠른 속도로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클리어 드라이 잉크 옵션은 특정 이미 지나 문자를 강조하는 UV코팅 효과를 제공하며 이 외에도 네



가지의 후처리 옵션은 소책자, 카탈로그, 매뉴얼, 브로슈어, DM, 포토북 등 고객의 사업 환경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후지제록스의 우에노 야스히키 사장은 "디지털 인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어떠한 요구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필수적이며 하이엔드급 성능과 다양한 상업 인쇄물 제작이 가능한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쇄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장서 연간 최대 50대까지 판매 기대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우에노 야스히키 사장은 판매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연간 최대 50대의 판매를 자신한다며 컬러 1000프레스는 성능과 가격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닌 뛰어난 장비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후지제록스 아-태지역 관계자도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2개 국가에서만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대에 달하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아-태지역에서만 연간 200대 이상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뽕큐 컬러' 행사는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부산(9.7)과 대전(9.10)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